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보 도 자 료	언론담당	황 애 리 (02-3156-7296)
	보도일자	2015.4.14.(화)
	※ 총 11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삶을 꿈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가정 양립,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 주제로 개원 3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가정 양립 확산 방안은 무엇일까? 여성정책 전문 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이명선)이 개원 32주년 기념 세미나를 통해 화두를 던질 예정이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4월 20일(월)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일·가정 양립,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개원 32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주요 국정 현안인 일·가정 양립 추진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양성평등 사회 조성의 주요한 전략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명하고자 마련되었다.
- 본 세미나에는 일·가정 양립 주제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표 연구자들과 외부 전문가가 발표자로 나선다.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은 “ 일·가정 양립 제도의 추이 분석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유희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사회 자녀양육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김효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일·가정양립을 통한 조직성과 향상: C 병원의 상호협조적 액션러닝 사례”을 주제로 발표한다.
- 주제발표 후에는 김영중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김중열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일·가정 양립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이명선 원장은 “우리 연구원은 그간 정부의 국정과제와 여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여성정책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왔다.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현안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양성평등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연구원의 개원 32주년을 맞는 소감을 밝혔다.

붙임 1. 행사 개요

2. 발표 주요내용

붙임 1 행사 개요

- ☐ 행사명 : 개원 32주년 기념 세미나
- ☐ 주제 : 일·가정 양립,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
- ☐ 일시 : 2015. 4. 20(월) 14:00-17:00
-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 2층 국제회의장
- ☐ 목적
 - 개원 32주년을 기념하여 주요 국정 현안인 일·가정 양립 추진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양성평등 사회 조성의 주요한 전략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명하고자 함.

☐ 프로그램

시간	내 용
14:00 - 14:20	개회식
	사회 : 김태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개회사 이명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축사 유승희(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김희정(여성가족부 장관)
14:20 ~ 14:40	다과
14:40- 15:40	사회 :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기조발제
	일·가정 양립 제도의 추이 분석과 미래 전망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한국사회 자녀양육의 쟁점과 대안 유희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40 - 16:30	일·가정양립을 통한 조직성과 향상: C 병원의 상호협조적 액션러닝 사례 김효선(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토론 김영중(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김중열(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가나다순
16:30 -17:00	종합토론 및 폐회

기조발제. 일·가정 양립 제도의 추이 분석과 미래 전망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에는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고 있는 거대한 여성인력풀이 있다 “ 이 말은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와 성장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사회적 위협으로 가시화되면서 OECD, 매킨지 등이 국가성장전략의 하나로 ‘여성고용률 제고’를 제안하면서 덧붙인 말이다. 이를 배경으로 2000년대 중반이후 일가정 양립제도가 부상하게 되었고 지난 10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보육, 휴가·휴직제도 및 유연근로 등의 제도 측면에서 현저한 발전이 있었다. 그런데 일가정 양립제도 출현을 이끈 정책목적은 달성되었는가? 출산률, 여성고용률 등 거시지표의 개선이 더디다. 이 글에서는 일가정 양립제도 내부의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장시간 노동체제와 노동문화의 변화로 이어지는 일가정 양립의 프레임 확장 필요성을 논할 것이다.

○ 일가정 양립제도의 등장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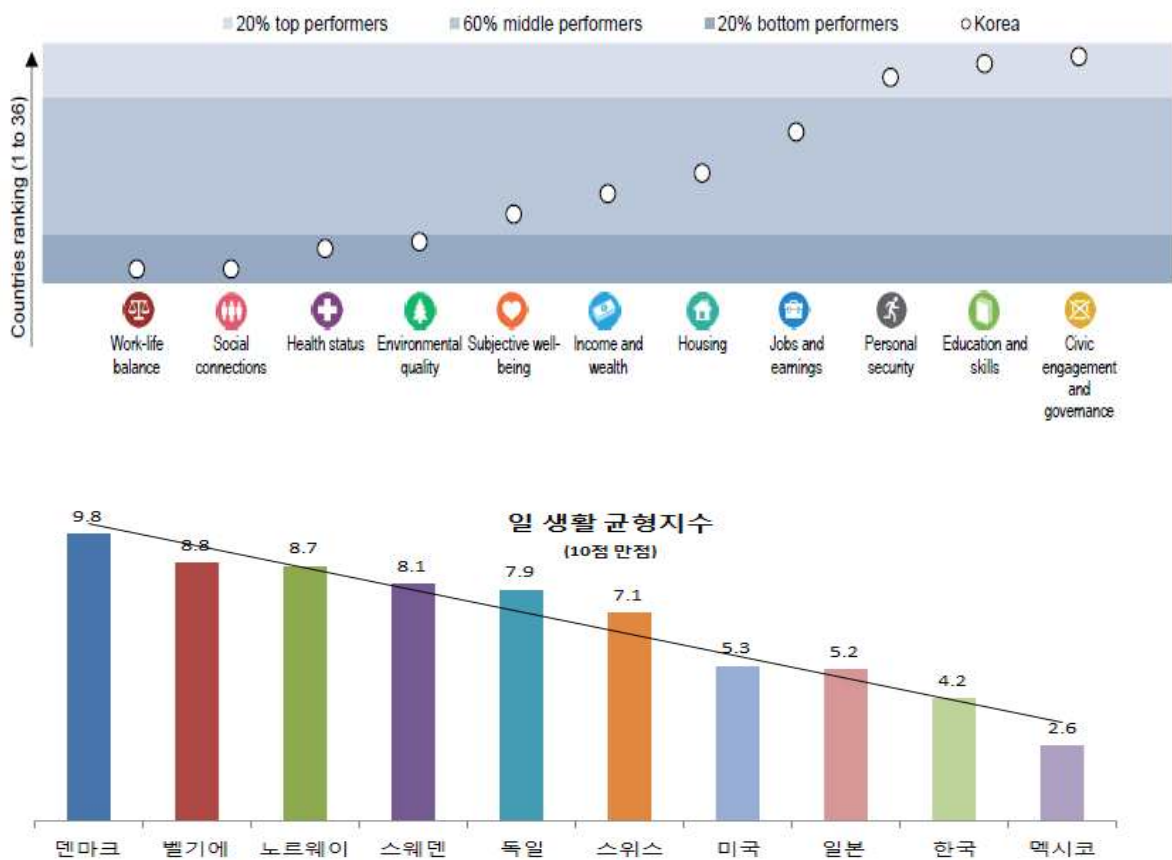
- 65세 이상 인구비중인 고령화 비율이 2018년에 14%에 이르고 2026년은 초고령사회가 될 것.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 머잖아 닥칠 것. 여성고용으로 구원투수를 마련하라는 국제사회의 진단과 충고가 이어짐. 여성고용률과 출산률, 잠재성장률간의 상관관계 보이는 실증자료들이 속속 등장함. 여성고용을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됨.

○ 일가정 양립제도의 진화

- 2007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으로 전면 개정되는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본격적 시행.

○ 한국의 특수성

-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여성의 고용 유지 및 재취업 일자리 창출, 양육책임 일부의 사회화 형태로 진행.
- 제도와 이용률 간의 괴리, 제도 자체의 불완전과 사각지대.
- 많은 제도에도 정책성고가 나타나지 않음. OECD가 발표한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¹⁾ 한국인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36개국 중 25위로 낮은 편인데,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 부문이 4.2점으로 34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에 머물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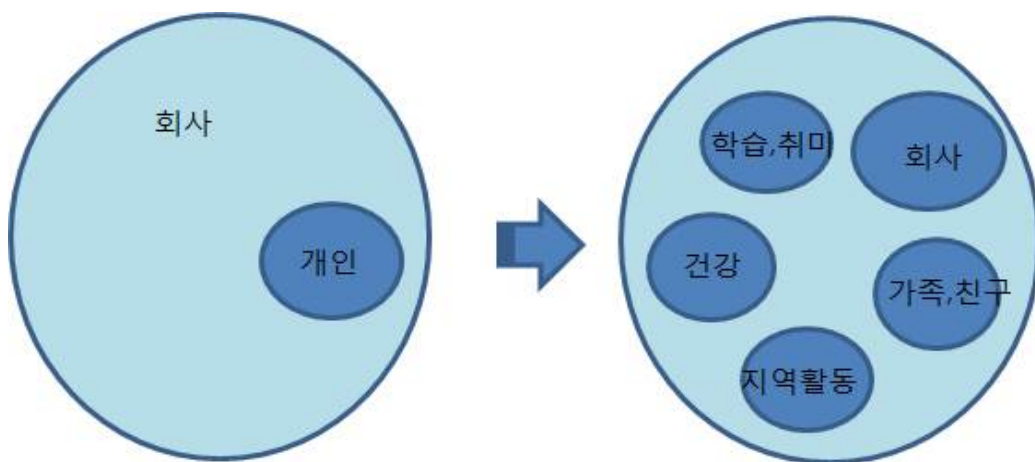


[그림] OECD의 2014년 ‘더 나은 삶 지수’에서 한국의 순위

1) 주거, 소득, 고용, 커뮤니티활동,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 OECD는 2011년부터 매년 이 지수를 조사해 발표.

○ 미래전망: 일과 생활의 균형 사회를 향해

-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 일·가정 양립은 저출산 대책의 차원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 사회 전반의 기준을 바꾸는 프레임으로 가야 함. 일·가정 양립 균형이 특정 제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 morality의 문제이며 자연스런 일상이 되어야 함.
- 현재와 같은 30~40대를 겨냥한 3대 범주(보육정책, 부모육아휴직, 탄력적 근무제도)에서 확장될 필요. 50~60대, 독신근로자, 무자녀부부, 고령노동자를 대상으로 정책고객 확장
- 우리 사회의 일 문화 전체를 바꾸는 아젠다로.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일하는 방법 모색
- 장시간 노동의 시정.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직능급’에서 ‘직무급’으로. ‘장시간 노동하는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이라는 생각에서 기업의 성과에 기여한 직원을 보상하는 인사/급여 체계로 전환
- 자녀양육의 책임을 갖는 남녀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것에서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으로. 다음의 그림에서 각 영역의 크기(우선순위)는 생애단계에 따라 변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적당량으로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



[그림] 일중심에서 일생활 균형사회로

발표 1. 한국사회 자녀양육의 쟁점과 대안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요 연구 결과²⁾

- 자녀양육 이슈는 맞벌이가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따뜻하고 조화로운 가정 유지에 중요 요인임.
- 맞벌이가구의 자녀양육은 가정과 사회적 육아지원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짐. 본 글에서는 가정에서의 육아와 사회적 육아지원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또한 사회적 육아지원 이용은 공급자 관점과 수요자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였음. 이를 근거로 대안적 육아지원에 대하여 제안하였음.
- 맞벌이가구들은 부모(41.2%), 육아지원기관(32.7%), 친인척(23.9%) 순의 비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양육방식 유형별 이용자 비율(영아, 유아, 초등)

단위: %

연령대별	부모	기관 ¹⁾	친인척	유급 도우미	자녀 끼리	기타	전체
영아	41.2	32.7	23.9	1.3	0.4	0.5	100.0
유아	36.9	45.6	13.8	1.0	1.9	0.8	100.0
초등	34.4	44.2	9.2	0.6	11.0	0.6	100.0

- 맞벌이가구 가정에서 부와 모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모가 부의 2.5배에 달함.

<표 2> 취업여성과 취업여성 남편의 평균 육아시간(평일)

단위: 시간

	영아기 자녀	유아기 자녀	초등학생 자녀
취업여성	4.2	3.5	3.0
취업여성의 남편	1.8	1.4	1.2

- 맞벌이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제공되는 육아지원정책을 공급자 관점에서 살펴보았음. 정부예산의 규모, 기관 운영 실태, 영유아 1인당 투입 비용의 규모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2) 유희정, 홍승아, 김지혜, 이슬, 동계연, 이향란(2014).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육아지원정책 연구』 결과임.

- 기관 점유율 및 원아 이용률은 공공기관 15.9%(원아 18.9%), 민간/사립 84.1%(원아 81.1%)으로 민간/사립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3〉 육아 지원 기관 현황

단위: 개소, 명(%)

	공공		민간/사립		계	
	기관	영유아	기관	영유아	기관	영유아
어린이집	3,771 (8.6)	263,299 (17.7)	39,999 (91.4)	1,223,681 (82.3)	43,770 (100.0)	1,486,980 (100.0)
유치원	4,577 (52.7)	142,052 (21.6)	4,101 (47.3)	516,136 (78.4)	8,678 (100.0)	658,188 (100.0)
계	8,348 (15.9)	405,351 (18.9)	44,100 (84.1)	1,739,817 (81.1)	52,448 (100.0)	2,145,168 (100.0)

- 영유아 1인당 비용은 영유아의 연령 및 이용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며, 다만 사립유치원은 비용이 자율화 되어 있어 정부의 지원 이외에도 학부모가 비용의 일부를 공식적으로 부담함.

〈표 4〉 이용 유형별, 연령별 영유아 1인당 비용

구분		보육정책	유아교육정책	양육수당지원	아이돌봄지원
영유아 1인당 보육 비용	영아	<국공립,법인(2014)> ● 0세: 1,020,944원 ● 1세: 735,222원 ● 2세: 571,912원	-	<전 계층> ● 0세: 200,000원 ● 1세: 150,000원 ● 2세: 100,000원 ● 3-5세:100,000원	<시간제> ● 시간당 1,250원에서 4,250원 지원 <영아종일제: 0세> ● 월 45-75만원 지원 <영아종일제: 1세> ● 월 40-70만원 지원
		<민간,가정> ● 0세: 871,667원 ● 1세: 591,000원 ● 2세: 451,000원	-	<농어촌아동> ● 0세: 200,000원 ● 1세: 177,000원 ● 2세: 156,000원 ● 3세: 129,000원 ● 4-5세:100,000원	
	유아	<국공립,법인(2014)> ● 3세: 387,191원 ● 4-5세: 370,428원	<국공립(2014)> ● 3세: 668,659원 ● 4세: 659,640원 ● 5세: 656,705원	<장애아동> ● 0-2세: 200,000원 ● 3-5세: 100,000원	
		<민간, 가정> ● 3세 : 323,333원 ● 4-5세: 315,000원	<사립(2013)> ● 3세: 537,269원 ● 4세: 535,926원 ● 5세: 535,943원		
비고		전액 정부 부담	학부모부담 및 정부지원	전액 정부 부담	소득기준 따라 가, 나,다,라형으로 차등 지원
		취업모 자녀비용 -영아: 49.5% -유아: 50.2%			

- 육아지원정책을 이용하는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 이용 실태를 살펴 보고 이러한 정책들이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음. 육아지원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오후 4시 전후하여 하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오후 4시 이후 별도의 비용이 투입되는 대체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취업여성들은 경력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됨. 특히 오후 늦게까지 일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던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종사자 여성들은 자녀가 어린 경우 실제로는 오후 4 - 5시 정도까지만 근무하는 형태의 일거리를 찾아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취업여성들의 요구에 따라 사회적 육아지원이 제공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육아지원기관의 서비스 제공 형태에 맞추어 취업여성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취업여성들은 육아를 위하여 월평균 4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연령별 육아지원기관/인력/프로그램 이용비용

단위: 만원

구분	영아	유아	초등
월평균 비용	41.2	40.4	40.4
내역 (우선순위)	1순위: 유급도우미(105.9) 2순위: 친·인척(57.6) 3순위: 학원(31.8) 4순위: 아이돌보미(24.1) 5순위: 유치원(21.8) 6순위: 어린이집(9.2)	1순위: 유급도우미(96.7) 2순위: 친·인척(42.0) 3순위: 학원(25.5) 4순위: 아이돌보미(23.2) 5순위: 유치원(19.8) 6순위: 어린이집(15.1)	1순위: 유급도우미(77.6) 2순위: 학원(31.5) 3순위: 친·인척(30.6) 4순위: 아이돌보미(23.8) 5순위: 방과후 학교(9.1) 6순위: 청소년아카데미(6.5)

○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특히 취업여성들을 위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대안적 육아지원 방안 우선순위 네 가지를 제시함.

- 1) 수요자 요구 및 이용실태를 반영한 육아지원정책 제공
- 2) 실질적 무상보육 / 무상 유아교육 실현 촉구
- 3) 국공립 기관 확대를 통한 안정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 4) 가정에서 모와 부의 실질적 동등 육아 참여 실현

발표 2. 일·가정양립을 통한 조직성과 향상:

C 병원의 상호협조적 액션러닝 사례

김효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듀얼아젠다 조직혁신은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해서 조직의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업무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조직혁신전략을 의미함. 이러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Rapoport, Fletcher, Bailyn, Pruitt (2001) 은 외부의 듀얼아젠다 전문가와 내부의 근로자들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조직진단과 조직혁신의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는 상호협조적 액션연구를 제안함.
- 본 연구에서는 듀얼아젠다의 목표를 갖고 C 병원에서 상호협조적 액션러닝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함.
- 상호협조적 액션러닝을 위해서 병원내부에서 연구에 참여할 두 부서를 선정하였고, 그 결과 간호사들의 육아휴직후 복귀율이 낮은 병동부서와 유연하지 못한 근무시간으로 일가정양립이 어렵다는 지적을 들은 재활센터가 선정이 됨. 이 두 부서의 중간관리자와 근로자 그리고 전략기획팀장으로 이루어진 '디자인팀'이 구성되었음. 디자인팀은 듀얼아젠다 전문가인 외부연구자와 함께 2개부서에서 조직진단, 조직 혁신 아이디어 도출, 및 실행의 전과정을 논의하고 평가하였음.
- 듀얼아젠다 액션러닝의 결과 병동부서에서는 업무가 몰리는 시간에 투입될 새로운 주간전담 간호사제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재활센터는 근로자들의 근무조를 3개조로 구분하여서 7:30, 8:30 그리고 11:00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여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형태로의 변화를 꾀함.
- 이러한 근무형태의 변화는 각기 다른 시간에 전담해야할 업무를 부서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침. 이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업무조정이 이루어졌으며, 간호사들내의 '진짜일'에 인식, 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위계와 통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변화를 경험함.

- 가족친화인증사업의 확대로 많은 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정책적으로 도입을 하고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음. 듀얼아젠다적 상호협조적 액션러닝은 제도를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일·가정 양립과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 내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